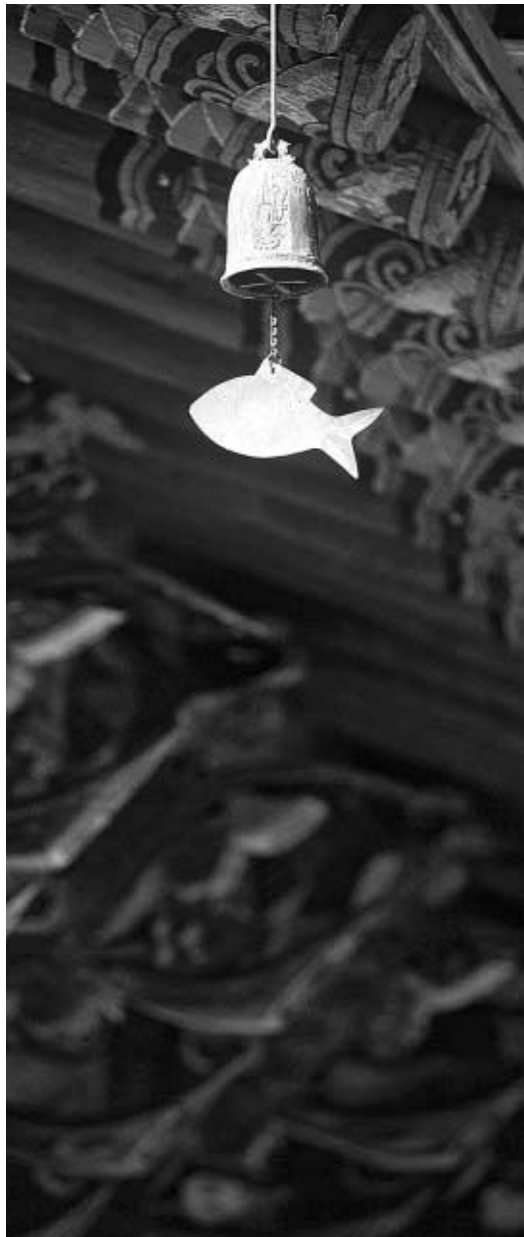


‘해인사를 거닐다’

전우익 외 지음 / 백종하 사진
용기장이 / 9천원



◇‘해인사를 거닐다’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을 주는 22명의 산문을 담았다. 사진은 해인사 대웅전 처마의 풍경.

지성인과 함께하는 마음산책

“...석가는 깨우친 순간 중생에 대한 미칠 듯한 그리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따라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우친 것은 참으로 깨우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깨우침이었다면 이제까지는 혼자서도 살 수 있을 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죽어도 혼자서 살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깨우침이었습니다. 사랑이란 궁극적으로 ‘너 없이는 못살아’라는 느낌입니다. 출가하기 전의 석가는 중생을 사랑하지 않았습니...

랍의 글을 통해 우리 시대의 정치와 종교, 문화계 등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저자들은 참 다양하다. 리영희, 이문옥, 윤구병, 노무현 등 시대의 양심으로 불리었던 이들에서부터 이윤기, 유희준, 김훈, 이현주, 이철수 등 여러 독자층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작가들과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소박하고 평범한 삶 속에서 얻었던 지극히 작은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지중해 여행 중에, 동해안 길목에서, 해인사에서, 고전 속에서, 추위 속에서, 편지글 속에서, 앞뜰에서, 미술관 그리고 어느 기차역과 대학 강단 등 자신이 속해 있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문득 깨달았던 작은 진리들이 그들에 어울리는 사조와 함께 담겨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이십여 명의 작가들을 한번에 만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유려하고 빼어난 글맛을 느낄 수 있고, 대중출판을 염두에 둔 글쓰기가 아니라서 더더욱 소박하고 겸허한 글을 대할 수 있으며, 지금과는 조금 다른 입장이었던 저자들의 과거를 만나볼 수 있다는 것 등이 이 책의 매력이다. 여기에 현재 <월간 해인>의 표지사진을 맡고 있는 사진작가 백종하 씨의 사진까지 곁들여져 가슴으로 눈으로 느끼는 감동이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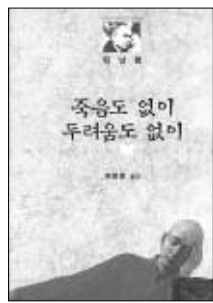
소박·평범한 삶 속 깨달음 이야기

월간 ‘해인’ 칼럼 ‘유마의 방’ 서 선별

‘해인사를 거닐다’는 우리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는 스물두명 저자들의 에세이를 한권으로 묶은 것이다.

이 책에 실린 스물두 편의 산문은 해인사에서 매월 간행되는 <월간 해인>의 칼럼 ‘유마의 방’에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실렸던 글 가운데 선별한 것이다. 먼 옛날 유마거사가 재가자의 품으로 기성교단의 그릇된 점을 타파하고자 노력하여 보수주의적 색채가 농후했던 당시 불교교단에 진보적 바람을 일으켰듯이, 유마의 방은 스님이 아닌 보통 사

새로나온 책



無·소멸 없고 ‘이어짐’ 만
‘죽음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틱낫한 지음 / 허문영 옮김
나무심는사람 / 9천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죽음’일 것이다. 틱낫한 스님은 <죽음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에서 이러한 두려움은 실재가 아닌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관념일 뿐이라고 말한다. 삶과 죽음이 실재한다고 믿는 것이 바로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소멸’이나 ‘무(無)’는 없으며 오로지 ‘이어짐’이 있을 뿐이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부처님이 설하신 연기(緣起)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일상생활에서 겪는 일화들로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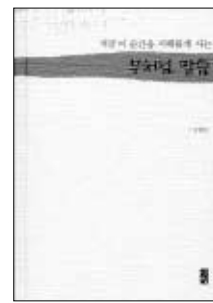
구절마다 차분하게 설명
‘뜻으로 읽는 금강경’
송찬우 편저
솔바람 / 1만2천원

동국여경원 역경위원이자, 중앙승가대학교 교수인 송찬우 씨가 금강경 삼십이분에 대한 낱말의 해석과 함께 각 분마다 그 의미에 대하여 자세하게 부연설명을 덧붙여 <뜻으로 읽는 금강경>을 내놓았다. 이 책은 지난 98년 초판 된 것. 이 책에서 송 교수는 부처님 제자인 수보리 존자의 의심하는 마음을 드러내어 그 의심을 결단하고 풀이하는 방법의 오묘함을 보여주고, 각 구절마다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해감으로써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의 의심을 타파해 주기 위해 설했던 내용들을 독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



요가동작 실기 그림으로
‘티벳요가 콧니(하)’
타르랑 투구린포체 지음 / 박지영 옮김
하남출판사 / 1만원

<티벳요가 콧니(하)>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새로운 요가 수련방법이다. 이 책의 상권에서는 이론과 마사지 이완법 그리고 기본적인 동작을 소개했으며 하권에서는 더욱 진보된 동작의 실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생리적인 에너지를 정화시키도록 도와주고, 몸과 마음과 감각의 균형을 통해 우리 삶을 보다 생기 있게 이끌어가도록 도와준다. 이 책은 요가를 처음 접하는 이들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동작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설명한다.



불경 마음관련 구절 뽑아
‘지금 이순간을 지혜롭게...’
김정빈 지음 / 이해선 사진
바움 / 8천5백원

‘마음은 제 좋은 쪽을 향해 재빠르게 흘러간다.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것, 그것이 마음 닦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할 일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마음’에 관한 구절 108가지를 가려 담은 <지금 이 순간을 지혜롭게 사는 부처님 말씀>이 나왔다. 소설 <단>의 작가 김정빈 씨가 간략한 해설도 덧붙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곧 마음의 가르침’이라는 김 씨는 우리들에게 부처님이 설하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여유를 가질 것을 권한다. 사진가 이해선 씨의 사진도 함께 담겨 있다.

불교여성학 연구현황 한눈에



‘불교여성학연구서목록집’

불교여성개발원 / 비매품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 이하 개발원)이 3개월의 조사 끝에 불교여성학의 국내외 연구 성과와 현황을 파악한 <불교여성학연구서목록집>을 펴냈다. 목록집 발간은 개발원이 기획, 지원하고 불교여성학 전공자 연

향목으로 분류했다.

1장 ‘불교와 여성’은 불교종론과 불교의 여성관에 관한 논저들을, 2장 ‘불교여성의 문제’에서는 여성 성별에 관한 논쟁과 팔경법 연구 등을 담았다. 3장 ‘불교여성의 유용한 유산’은 한역대장경의 비구니전 연구와 근현대 불교여성지도자에 대한 논저들을, 4장

단행본 160·논문 240편 수록

구도임 담마디나가 자료 수집과 분류, 분석을 맡았다.

<목록집>에는 불교여성학관련 단행본 160편과 학위논문, 학회지나 단행본에 수록된 논문 240편 등 총 400여 편의 목록이 담겨있다. 자료는 불교여성의 문제를 사성제에 대입해 ‘고’, ‘집’, ‘벌’, ‘도’를 주제로 4개

‘새로운 물결’에서는 불교와 페미니즘 비교 연구 성과를 종합했다.

이인자 원장은 “목록집 발간으로 불교여성학 자료구축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누락된 점은 연구와 조사를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02)722-2101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불교잡지 봄호 3권 출간

불교 계간 잡지 봄호가 연이어 출간됐다. 불교 속의 문화, 문화속의 불교와 만나는 <불교와 문화>는 ‘스님, 틱낫한을 말한다’를 실었다. 틱낫한 스님에 대한 기존의 오해와 편견들, 플립빌리지의 수행체제 내용도 소개된다. 또 불교전문 출판사인 민족사 윤창화 사장이 직접 쓰는 ‘근대불서 출판 이야기’에서는 개항이후 최초의 불교출판사였던 ‘삼장학회’와 용성스님의 이야기를 담았다.

<불교문예>는 이번호에서 제8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최인호, 시인 정희성, 평론가 조남현씨의 작품을 실었다. 시문학전문지 <유심>은 유심대담 ‘우리 시대의 대표적 국민작가 조정래와의 대화’를 머리에 실었다. 기획특집으로 ‘선과 시’ 다섯 번째 시리즈와 시인 이승훈(한양대 교수)의 시 세계를 집중 탐구했다.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Rank), 도서명 (Book Title), 저·편자 (Author/Editor), 출판사 (Publisher). Lists top 10 books including '화', '힘', '행여 내가 생애해 없애 사람이 없기를', etc.

도서 안내: (02)737-0695

Advertisement for yosiamun.com featuring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and contact information: (02)737-0695.

Large advertisement for the TV series '어린그늘' (Young Shadow) on KBS and MBC. Includes promotional text: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바라만 보아도 편안하다' and '동자승 이야기'. Features a photo of a young child and book covers.